

씨 뿌리는 복숭이와 감나무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전라도 고창에 어떤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아우 집에 들러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오곤 했으니깐요. 하지만 아우는 이런 형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무엇이든 형에게 주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우는 마름에서 소 두 마리를 빌려 밭으로 갔습니다. 소에게 쟁기를 지우고, 아우는 열심히 밭을 갈았습니다.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우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일하기 정말 힘들네. 밭을 갈 때 누가 뒤에서 씨를 뿌려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자 그 밭을 기다리기도 한 듯 날데없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목에 씨 바구니를 걸더니 아우를 따라다녔습니다. 아우가 밭을 갈면 앞방울 씨를 뿌리고 뒷방울은 흙을 덮었습니다. 이렇게 한창을 일하고 나니 아우는 문득 시냇가를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걸 보니 벌써 점심때가 되었군.' 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밭둑에 주저앉아 싸 가지고 온 빵을 꺼냈습니다. 아우는 빵을 먹으려다가 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는 침을 질질 흘리며 아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내 정신 좀 반. 일을 도맡아 준 너를 잊고 혼자 먹으려 하다니……." 아우는 견연쩍은 얼굴로 개를 바라보다가 자기 가 먹을 빵을 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옛다. 많이 먹어라. 네가 수고가 많구나." 개는 빵을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배가 고팠는지 빵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빵을 먹고 똥이 나큰해졌는지 개는 입을 크게 벌려 하품을 하고는 밭 옆으로 난 길 한가운데에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는 급세 굴아떨어졌습니다. 그 때 비단 장수들이 밭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밭에는 비단이 잔뜩 식혀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들은 길 한가운데 누워 자는 개를 보고 밭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보시오, 개를 쫓아 주시오. 개가 길을 막아 밭이 지나갈 수 없지 않소." 밭둑에 앉아 있던 아우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그러다가 개가 깨겠소. 저 개는 나를 도맡 씨를 뿌려서 몹시 피곤하단 말이오. 그러니 절대 깨워서선 안 돼요." "개가 씨를 뿌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저 개는 목에 씨 바구니를 걸고, 내가 앞서서 밭을 갈면 앞방울은 씨를 뿌리고 뒷방울은 흙을 덮소." "그 양반 거짓말 한번 잘도 하네. 예끼, 이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개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어디 있긴 여기 있지." "그런 우리 내기를 하시다. 밭일 당신 많이 밟으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몽땅 드리겠소. 하지만 당신 말이 틀리면 소 두 마리를 우리가 끌고 가겠소." "좋아요." 아우는 밭둑에서 일어나 길에서 한창 자고 있는 개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목에 씨 바구니를 걸고 아우가 밭

을 갇힌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비단 장수들은 꺾꽂없이 비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는 비단을 팔아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형이 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우는 형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개를 내놓거라.”

아우는 굳말 없이 개를 형에게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은 마을에서 소 두 마리를 빌려 개를 데리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소에게 쟁기를 지우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아우가 말한 대로 목에 씨 바구니를 걸고 뒤를 따라다니며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새 전심때가 되었습니다. 형은 밭둑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개가 찰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었지만 형은 밥 한 숟 주지 않았습니다. 전심을 굶은 개는 밭 옆으로 낚길 한가운데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잠속으로 굶아떨어졌습니다.

그 때 비단 장수들이 밭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밭에는 굵디고운 비단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밭둑에 앉아 쉬고 있던 형은 비단을 보고는 찰을 꼭꼭 삼켰습니다.

‘히히, 저 비단이 모두 내 것이 되겠구나.’

비단 장수들은 길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개를 보고 밭을 연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개 주인이요?”

“그렇소말.....”

“개를 쫓아 주시오. 개가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갈 수 없지 않소.”

형은 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을 입에 대고 말했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그러다가 개가 깨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이 개는 나를 도와 밭에 씨를 뿌려서 몹시 피곤하단 말이오. 그러니 절대 깨워서 안 돼요.”

“개가 밭에 씨를 뿌렸다고요?”

비단 장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별 소리 다 듣겠네.”

“거짓말이 아니오. 저 개는 목에 씨 바구니를 걸고, 내가 앞서서 밭을 갇힌 앞발로는 씨를 뿌리고 뒷발로는 흙을 덮는단 말이오.”

“그렇다면 좋소. 내기를 하도록 합시다. 당신 말대로 개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가진 비단을 모두 당신한테 주겠소. 하지만 거짓말이면 당신이 가진 소 두 마리를 우리가 데려가겠소.”

“좋습니다.”

형은 신바람이 나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씨를 뿌려라.”

그러나 개는 꺾꽂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비단 장수 한 사내가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졌소. 개가 씨를 뿌리기는커녕 잠만 자고 있으니 말이오.”

결국 형은 남에게 빌린 소 두 마리를 비단 장수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형은 한가 머리끝까지 내서는 누워 있던 개를 힘껏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러자 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형은 개를 땅에 묻어 주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생은 개가 죽어 길에 버려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바른 개를 데려와 자기 집 뒤뜰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뒤 개를 묻었던 자리에서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에는 곧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주 달고 맛있었습니다. 동생은 감을 장에 내다 팔아 큰돈을 벌었습니다.

한편, 목신쟁이 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단숨에 동생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동생은 파친 집을 비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형은 뒤뜰로 가서 개의 시체를 파내 자기 집 뒤뜰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개를 묻은 자리에서 감나무 한 그루가 쑥쑥 자라났습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형은 이것을 보고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헤헤, 나도 이제 감을 팔아 큰돈을 벌 수 있겠구나.’

형은 감을 따려고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감이 머리 위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으악!”

형은 무수히 떨어지는 감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진 감들은 형을 덮어 그대로 커다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감은 겉모양만 감이었고, 속은 돌이었으니 자연스럽게 돌무덤이 된 셈이었습니다. 

